

# 現代獨文學에 그려진 人間像(VI)

—Hermann Hesse 作品을 中心으로—

金 哲 子

(獨文科 教授)

## I.

이 論文은 Hermann Hesse(헤르만 헤세)의 作品들에서 現代獨文學에 묘사된 人間像을 고찰한 것이다. Hesse는 Thomas Mann과 함께 生前에 노벨文學賞도 받은 獨逸의 쌍벽을 이루는 世界的인 現代作家이다. Hesse는(1877.7.2 독일 Calw—1962.8.9 스위스 Montagnola) 개신교 선교사의 둘째아들로 태어났지만, 祖父와 父母가 東印度의 선교사로 봉사한 것이 계기가 되어 印度宗教와 그 哲學思想을 즐겨 受用했고, 그 외에도 佛敎와 道敎 및 中國의 孔子思想까지 받아들여서는 이것들을 또한 정통파 기독교 신앙이 아닌 神秘主義기독교와 혼합하여 그야말로 自己個人的인 宗教를 만들었다. Hesse 自身도 <나의 종교><sup>1)</sup>라는 글에서 나의 個人的인 宗教는 그 形態를 종종 變化하면서 서서히 자라서 發展된 것이라고 했다. Hesse의 이같은 宗教的인 人生觀때문에 그의 作品들은 自然의 경의심과 함께 강한 人本主義思想과 그의 氣質的인 낭만주의적 동경을 강하게 풍기고 있다. 그 때문에 Hesse는 獨逸에서 보다는 오히려 東洋, 특히 日本과 印度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못지않게 사랑받고 읽혀졌다. 60年代까지도 獨逸大學들은 Hesse 作品을 一種의 낭만주의文學의 亞流로 보고 강의에 취급할만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60年代 중반에 갑자기 美國에서 무섭게 “헤세—붐”이 일어나고 읽혀졌다. 東洋에서와 같이 美國에서도 주로 젊은 青年層이 讀者의 主流를 이루었다. 특히 Hesse 作品中에 主人公이 환각제같은 것과 이상한 담배를 피움으로 환상가운데서 肉의 욕망의 世界를 경험 만족해 봄으로써 肉의 世界를 초월하는 內容을 가진——구라파에서는 비난과 비판의 대상이었던 小說——《Steppenwolf》(荒野의 이리)와 印度小說인 《Siddhartha》가 열광적인 선풍을 일으키면서 판매되었다. 어떤 Rock그룹은 自己그룹의 이름을 「Steppenwolf」라고 부치는가 하면, 어떤 술집은 自己의 吧아 이름을 「Steppenwolf」라 부치고 나오기도 했다. 환각제복용자와 히피族때문에 심각한 社會問題를 안고 있던 당시의 美國은 Hesse 作品의 영향을 위협한 것으로 비평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美國에서의 Hesse 文學의 영향은 이 面뿐만은 아니었다. 60年代에 일고있는 美國靑少年들

1) H.H.: 《Mein Glaube》, “Später hat meine persönliche Religion ihre Formen noch oft verändert, ..., stets aber langsam im Sinn von Zuwachs und Entwicklung.” Bd. 7, S. 372.

의 새로운 가치추구의 욕망이 바로 Hesse 作品中에서 異質的인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Hesse 小説의 主人公들이 自己形式의 길을 걷기위해서 이것을 저지하는 그 어떤 社會的 規範과도 과감히 싸워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공감도를 발견했기 때문이기도 했다.<sup>2)</sup> 獨逸에서는 70年代부터 Hesse 作品의 재평가가 시도되었고 關心을 끌게 되었다. Hesse의 作品들은 確固한 信仰의 實體와 體驗이 없으며, 또한 思想的知識의 體系도 아직 없다. 그러면서도 理想的인 것을 갈망하는 젊은층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매력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信仰이란 精神的, 思辯的 혹은 想像의 유희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行爲를 통해 具體的으로 自己안에 성취되는 實際的인 經驗의 事實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生命의 信仰을 단순한 정신적 종교심으로 전락시키고 뿐만 아니라 生命의 길을 찾는 者를 혼돈시킬 위험을 Hesse의 作品中에서 통감한다. 宗教와 文學은 엄연히 별개의 영역이어서, 文學化한 宗教나 宗教化한 文學은 生命을 주는 신앙이 아니라 가상과 상상세계를 그 영역으로 하는 文學 以上の 것으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 論文에서 主로 分析될 小説은 Hesse가 첫 作家의 명성을 얻게되어 글쓰는 作家로 발을 먹게한 1904년에 發表된 初期小説인 《Peter Camenzind》(페터 카멘친트)와 그의 代表的인 小説이며 後期大作인 1943년에 발간된 《Das Glasperlenspiel》(유리알 遊戲)이다. Hesse가 묘사한 人間像은 한결같이 Hesse 自身の 平生觀心事였던 「人間됨」(Menschwerdung)이요 「人格體」(Persönlichkeit)를 爲하여 갈등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成長 發展해가는 內的過程을 묘사한 것이다. Hesse는 〈어느 일하는 밤〉<sup>3)</sup>이란 제목의 글중에 自己作品들은 「靈魂의 傳記들」(Seelenbiographien)이며, 그의 主人公들은 「단 한 사람이요. 바로 神話의 人物」로서 Hesse 自身の 경험과 사상과 문제들의 運搬者요 象徴이라고 했다. Hesse 小説은 歷史的 혹은 政治社會的事件들을 취급한 것도 아니며 人間相互間의 性格의 갈등의 문제나 生活문제 를 취급한 것도 아니다. 한결같이 Hesse 自身の 人生行路같이 한 人間이 태어나서 사람이 될려는 과정을 一般化 및 凡俗化를 위해 전통과 세계와 충돌하여 싸워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Hesse의 主人公들은 오직 全體로서의 人間性을 획득하는 것을 삶의 目標로 삼고 있다. 일 자체도 目的이 아니요 부유한 生活이나 명예도 目的이 아니라, 공부와 일도 이 自己 完成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이요 방법들에 불과하다. Hesse의 人物들은 모두가 이 同一한 目標를 向한 몸부림을 그린 것이다. 다만 그들의 환경과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도와 행로가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 때문에 Hesse 作品中에서 人間像을 研究하기 위해서는

2) Vgl. Sigrid Mayer: <Die Hesse-Rezeption in den Vereinigten Staaten>, in: Hg. v. H.L. Arnold: Hermann Hesse, Text+Kritik, München 1983, S. 86-100.

3) H.H.: <Eine Arbeitsnacht>... "Wo eine Figur mir sichtbar wird, welche für eine Weile Symbol und Träger meines Erlebens, meiner Gedanken, meiner Probleme werden kann. Diese Erscheinung dieser mythischen Person (Peter Camenzind, Knulp, Demian, Siddhartha, Harry Haller usw)... sind Seelenbiographien, ..., in denen eine einzige Person, eben jene mythische Figur, in ihren Beziehungen zur Welt und zum eigenen Ich betrachtet wird." Bd. 7, S. 303.

그의 첫小説과 마지막 大作을 주로 취급해서 능히 그 目的을 달성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Hesse 自身이 信仰과 學問이 있는 家門 즉, —친할아버지는 의학박사요, 외할아버지는 인도에서 봉사한 박사선교사이며 父母역시 교육받은 선교사였다—, 出身이기 때문인지 Hesse의 小説의 人物들은 한결같이 知的이고 精神的이요 宗教心이 강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결코 社會의 그늘진 곳에 사는 서민도 一般勞動者도 아니다. <어느 소설을 읽는중에><sup>4)</sup>라는 글에서 Hesse는 말하기를 大都市生活을 무대로하는 人物을 그는 小説속에 그릴 수가 없다는 것이다. Hesse 自身에게 大都市生活이 맞지 않고 또한 그들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 한다. 人間史가 엮어져 가기 위해서는 政治, 事業, 社交界가 必要로하는 大都市生活도 있어야 하겠으나, 그곳에서 추구되고 요구되는 향락 명예 矚세이서널한 事件들에는 觀心이 없다는 것이다. Hesse가 즐겨 읽는 小説이란 「진지하고 모범적 人間」(ernsthaften und vorbildlichen Menschen)이 취급된 책이라 한다.

Hesse小説의 人間들을 大別해 볼 때 그들은 大都市生活의 事業家나 政治家나 社交界의 社會의 人物이 아니며 몹시 精神的이면서도 Nietzsche와는 달리 겸손과 경의심을 가진 宗教的인 人物들이다. 宗教心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生活의 서민이나 노동자는 아니다. 한결같이 自己自身の 內的成長을 삶의 主目的과 關心事로 삼는 그런 지식층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Hesse가 경험하고 통찰해서 알게된 바의 「성스럽기 까지한 眞理로」<sup>5)</sup> 간주 한다는 「人間됨의 第三의 段階」에 있는 사람들이다. Hesse 人物들의 또 다른 특징은 自然主義作家나 Th. Mann 과는 대조적으로 전혀 그 외모를 독자가 상상해 볼 수 없고 그 內面の 움직임만 알 수 있게 묘사된 점이다. 內面生活을 들어내기 위해서 전혀 外모의 사실성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典型的인 存在이다. Hesse 自身이 말했듯이 Hesse에게 文學이란 삶의 복사가 아니라 우연한 것의 統合적 통찰이요 「類型的인 것과 普遍妥當한 것」<sup>6)</sup>으로의 압축한 것이다. 文化란 Hesse에게는 「충동과 정신 사이의 모순」과 갈등의 계기가 삼입된 것이다. 콤플렉스가 치유되는 곳이 아니라 그의 가장 큰 긴장이 창조적으로 충족되는 곳에 文化의 업적이 생긴다는 것이다. 天才를 알고 精神의 비극을 아는 것이 참 文化人이라고 한다. 1930년 1月 31日부의 아들 Heiner에게 보낸 便紙<sup>7)</sup>에서 Hesse는 그의 아들중에 모두가 어떤 主義나 信念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自己가 파악한 理想에 대한 信念에 충실하기 위해서 生活의 유익과 평안을 버리고, 아니 비상시엔 生命까지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自己信念을

4) Vgl. H.H.: <Beim Lesen eines Romans>, Bd. 7, S. 503f.

5) H.H.: <Ein Stückchen Theologie>..., "ja heilig, ich halte sie für Wahrheit schlechthin." Bd. 7, S. 388.

6) H.H.: Brief <an eine junge »Demian« Leserin>, In: Hg. v. H.L.A.: Text+Kritik, S. 3. "Aber im wesentlichen ist ja Dichtung nicht ein Abschreiben des Lebens, sondern ein Verdichten, ein Zusammensehen und Zusammenfassen des Zufälligen zum Typischen und Gültigen." 1929, Febr.

7) Vgl. H.H.: Briefe <An seinen Sohn Heiner> In: H.L.A.: Text+Kritik, S. 6.

위해서 生活의 어떤面을 희생내지 체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人格의存在로 보며, Hesse 小説의 主人公들은 自己個人的 信念이 없는 大衆이 아니라 自己信念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面이 있다. Hesse에게는 이 경우에 그 信念이 꼭 가치있는 것이 아니라도 무방하며 다만 自己信念을 위해 生活의 유익과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그 태도에 人格性이란 것을 부여하는 그 立場이다. 그렇다면 가치없는 잘못된 主義나 信念을 위해 희생되는 人生의 어리석음까지도 높이 평가해야 하는 무서운 어리석음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Hesse 小説이 대개 發展小説의 형태이며 그 主人公들은 少年과 男子들이다. Hesse 小説中에는 부인과 처녀는 다만 성장해가는 少年과 男子의 반력자로만 나타나는 點도 특색이라 하겠다.

## II.

Hesse 文學의 精神世界를 人本主義의 見解로써 表現하기를 一般的으로 內面에로의 길(der Weg nach innen)을 탐구 묘사한 것이라고들 말한다. 그런데 Hesse의 文學世界는 결코 단순한 精神의 思辯的 世界의 產物이 아니라 一種의 宗教的 世界의 表現이다. 그런데 Hesse의 宗教란 在來에 있어온 그 어떤 한 宗教를 받아드린 것이 아니라 그가 接觸할 수 있었던 여러 宗教들에서 그의 性向에 맞아 그가 받아드리고 싶은 面만을 受用해서 自己 나름대로 통합 혼합해서 만들어진 Hesse 自身の 말 그대로 그의 「個人的인 宗教」다<sup>8)</sup>. Hesse는 어릴때부터 개신교기독교의 경건한 家庭에서 成長하면서 기독교를 접하였으나 모든 種類의 戒命에 대해서는 항상 反抗의으로 行動했는데 「너는 해야한다」(Du sollst)<sup>9)</sup>란 表現만 들으면 속이 뒤집히고 냉혹한 心情이 되더라고 했다. 創造神이며 人格神으로 절대 善하시고 義롭고 사랑의 神으로서의 萬有의 主人이며 統治者이신 기독교의 하나님아버지를 믿지도 體驗하지도 못한 것이 分明하다. 그의 告白대로 Hesse는 그가 영향받은 神秘主義의인 基督教 위에 外祖父의 서고에서 찾아 읽었다는 「die Upanishaden, die Bhagavad Gita 및 佛敎서적」과 老子의 道敎와 孔子의 哲學思想<sup>10)</sup>까지 습쳐서 神本主義와 反對되는 人本主義의인 凡神論의 自己宗教, 自己流의 信仰이란 것을 만들었다. 그러한 상념을 가진 自己自身을 참으로 宗教의인 사람으로 생각했다. 그는 告白하기를 自己는 「宗教없이 결코 살지 않았고 또 宗教없이 는 하루도 살 수 없었다. 그러나 平生에 教會없이 는 살 수 있었다고 했다.」<sup>11)</sup> Hesse 小説의 主人公

8) Vgl. H.H.: <Glaube>, "Meine persönliche Religion." Bd. 7, S. 372.

9) H.H.: <Kurzgefaßter Lebenslauf>, Bd. 4, S. 470.

10) Vgl. H.H.: <Meine Religion>, Bd. 7, S. 370-374.

11) H.H.: <Mein Glaube>, "Ich habe nie ohne Religion gelebt, und könnte keinen Tag ohne sie leben, aber ich bin mein Leben lang ohne Kirche ausgekommen." Bd. 7, S. 373.

들의 宗教性도 바로 Hesse의 그것이다. 比較宗敎學的 立場에서 보더라도 Hesse는 宗教的인 사람이기 보다는 宗教的인 形態의 信念의 사람이다. 그가 宗教없이 살 수 없었다는 말은, 精確한 의미에서는 精神的 宗教性的 信念이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內容임을 알게 된다. Hesse의 小說의 主人公들의 人間像을 알기 爲해서는 Hesse 自身이 느끼며 많은 사람에게서 發見된다고 한 두種의 觀念을 미리 알지 않으면 안되기에 여기에 그것들을 그의 글 〈한 짚은 神學〉<sup>12)</sup>과 〈나의 신앙〉에서 간단히 간추려 보기로 한다. Hesse가 찾아냈다는 이 두 觀念은 「人間됨의 第三段階」와 「人間의 두가지 기본타입」이다.

Hesse가 基督教과 印度의 힌두敎와 中國의 道敎 및 佛敎를 研究해서 얻은 人類研究의 產物이란 비록 각각 다른 種族과 피부색과 言語와 文化的 分裂가운데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것은 「單一性」이며 「하나의 人道」이며 「하나의 精神」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人間靈魂이 3段階의 發展을 通過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第一段階는, 즉 「人間이 되는 길의 始作인데 이것은 罪가 없는 낙원인 유원時代이며 이것은 責任을 모르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있는 人類의 大多數의 人物들은 靈魂의 經驗이 없으며 갈등과 해탈을 이해못하며, 유치한 發展의 皮안에 살고 있다. 이들은 결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들은 다만 그들의 「충동과 유아몽상의 責任感없는 動物世界」에 서 있다.

第二段階는 無罪에서 罪로, 善과 惡을 아는 나라로 이끄는 길이다. 이 段階를 「진지하게 그리고 個別的인 個體로서」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어쩔 수 없이 德의 實踐의 不可能과 善한 상태에 自己努力으로는 도달할 수 없음을 통감하여 절망에 이른다. 이 絶望이 或者는 멸망으로 빠지게 하고, 或者는 精神의 第三段階에로 들어가게 한다. 第三段階에 도달한 사람만이 最善의 人間됨의 단계를 획득한 사람들로서 지옥에서 솟아 나와서 變化된 世界, 새로운 種類의 無罪의 狀態를 얻게 된다. 이곳에서는 道德과 律法의 皮안의 狀態를 경험하며 구원과 은혜로 몰입하는, 가장 높은 새로운 種類의 責任感에서 벗어난 믿음, 信仰의 世界이다. 人間이 不完全한 世界와 自己自身에게 責任을 지지 않고, 인식을 초월한 [神]이든 「한 비인격적인 存在」가 있는데, 이들을 섬기면서 自身을 맡기는 狀態이다. 여기까지가 人間으로서 [참 사람]이 되는 發展段階라 한다. 그런데 여기를 넘어서 더 發展의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人間이 神이 되는 것, 「靈魂의 순수한 存在」가 되는 것, 「Mahatma」가 되어서 物質과 形成의 그 어떤 것에서도 구애받지 않는 狀態를 얻게 되는 바인데, 여러 종교가 말하고 있지만 Hesse는 自己가 體驗 못한 것이며, 그것은 단순히 꿈인지 환상인지 소원의 모습인지 모르겠으며, 정말 한 人間이 실제로 神이 된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태어나서 人間이 되는데 必要한 이 三段階를 거치면서 成長 發展을 經驗하는데 있어서 두 種類의 相異한 타입의 人間을 Hesse는 區分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Hesse는 [理性的인 사

12) H.H.: 〈Ein Stückchen Theologie〉, Bd. 7, S.388-402.

람](die Vernünftigen)과 「경건한 사람」(die Frommen)이라고 명칭했다. 모든 歷史上의 人間들을 이 두 타입으로 區分할 수가 있고, Hesse 自身은 경건한 타입에 속한다고 한다. 그런데 행복한 思想的 經驗이 지나고 나면 Hesse는 다시금 自己가 경건한 類型인지를 모르게 되고, 성향과 특성이 理性의 人間의 그것과 아울러 특별히 分明하게 가장 기분나쁜 특색들을 發見하게 된다는 것이다.

理性的 類型의 人間은 理性以外的 그 무엇도 신뢰하지 않는다. 理性을 좋은 才能일뿐만 아니라 最高의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世上의 意味와 그의 삶의 意味를 自己自身안에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다. 理性的 類型의 人間은 질서와 合目的性의 可望을 世上과 歷史에 운반하여 發展을 믿는다. 理性의 人間型의 가장 두려워하는 원수는 죽음이며, 그의 삶과 作業의 무상함에 대한 생각이다. 죽음의 생각에서도 피하려고 그는 배로 活動하며 世界의 理性的 支配와 法則과 인식을 향해 분발한다. 때로는 그의 發展을 믿지 않는 경건型的의 사람들을 증오하고 시기한다. 이들은 위생과 도덕과 민주주의 등등 좋은것을 강요한다고 믿으면서 人類를 명령하고 조직하고 폭력을 가한다. 이들은 善을 實踐하기 위해서 權勢를 획득하려 하지만 가장 큰 위협은 權勢를 획득하려는 그것에, 권세의 오용과, 명령하려는 意志와 태도에 있는 것이다. 이들은 조직을 모방하고, 이들의 가장 높은 理性이 世上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精神과 같은 것을 아는데 있다. 理性的 類型의 人間은 教育者이며 지독한 진지함에 빠지기를 잘한다. 自然과 藝術에 대해서는 항상 불안하게 자신없게 느끼며 때로는 이것들을 멸시하는가 하면 때로는 과대평가하기도 한다.

경건한 類型의 사람에 있어서 신앙과 삶의 感情의 기초는 경외심(die Ehrfurcht)이다. 이 경외심은 강한 自然感覺과 비이성적인 世界질서에 대한 신앙에서 나타난다. 그는 地球에 봉사하는 부분이다. 죽음과 무상의 두려움이 올 때는 그는 신앙에 도피한다. 그의 모범은 理性이 아니라 自然이기 때문에 進歩는 믿지 않는다. 그는 권세를 추구하지 않으며 他人을 강요하는 것을 꺼린다. 그는 쉽게 神話에 빠지고 人間을 미워하고 멸시할 수 있으나 박해하거나 죽이지 않는다. 항상 고통을 당하는 쪽이다. 그는 항상 유희하는 경향이 있고, 自然과 藝術에 대한 自信感을 느낀다.

그런데 이 兩쪽 人間型에서 모두 天才도 나오고 理想主義, 영웅주의, 희생정신이 나온다. 理性的인 類型의 天才를 Hesse는 「Hegel, Marx, Lenin」을 들고 있고, 경건한 類型의 사람을 「Tolstoi」로 꼽는다. 天才의 人間의 표적은 비록 그가 自己類型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어 代表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反對類型을 존경하며 남몰래 갈망한다. 많은 例外的인 사람들은 이 두 기본유형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깊이 相反되는 才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쪽이 다른쪽을 질식시키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한다. 경건형 天才와 이성형 天才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몰래 사랑하고 서로에게 끌리듯이, 最上의 精神의 經驗은 항상 理性과 경건사이의 화해를 가능케 한다.

경진형의 人間이나 이성형의 人間이 모두 三段階를 거쳐서 참사람이 되는데 그 意味는 상이하게 작용한다. 無罪한 유년시대의 狀態는 이 두 人間의 基本類型에 同一하다. 그러나 人間됨의 첫 걸음인 善惡의 世界로 들어서면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경진한 유형의 사람은 더 어릴때답기 때문에 유년기의 낙원을 떠남에 더 강한 반발을 체험한다. 죄를 경험하는 世界가 그에게 너무 異質적이고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비약을 통해서 다음 단계의 해탈, 구원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유약한 자들은 善惡이 없는 責任感없는 유년기로 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理性的 類型의 사람은 그와는 反對로 두번째 단계 즉 罪의 단계요, 文化의 단계요, 行爲와 文明이 그들의 未來의 고향이다. 그는 어린 時節을 그리워하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善惡에서의 해방도 극심하게 갈망하지 않는다. 비록 해탈의 단계를 획득할 수도 있지만 그는 道德과 文化로써 세워진 使命을가지고 해결된다고 믿으려한다. 그의 노력의 失敗나 그의 公義의 無價値性에 대해 절망하기가 어렵다. 第三의 段階에 도달한 경진형과 이성형의 사람들은 그들의 타고난 異質性을 서로 사랑하고 동경하게 된다. 이 지점에 이르러서야 사람은 참 人間性實踐의 可能性위에 놓이게 된다. Hesse는 그러나 경진형의 사람이 第三段階에 와 있을 때 가장 가치있는 사람으로 본다. Hesse는 自身을 경진형으로서 第三段階에 도달한 宗教人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Hesse 自身이 만든 그의 個人的인 혼합宗教思想에依하면, 무서운 모순을 發見하게 된다. Hesse는 人格의 創造神을 부인하고 進化論을 믿고 있다. 그런데 그의 理論인즉 유년 時節은 罪도 責任도 없는 낙원時節이다. 그랬다가 第二단계에 들어서면서 善惡을 알게되어 動物같은 人間들이 大部分이다. 그중에서 즉 小數가 그것도 경진형의 사람들이 第三段階에 이르러서 神같은 者가 된다. 第三段階에 온者들에게도 大部分의 사람들이 순간적인 것뿐, 自己안에 第二단계에 처해있는 動物的 要素를 느끼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第二단계에 있는 [평균치人間, 온갖世上添花]을 이들은 「고리라」<sup>13)</sup>라고 칭하며 아직 사람이 되지 못한 者들이라 했다. 예를 들면 殺人 않기 위해 入道를 거부하는 青年들을 강경 형벌하는 사람들, 人道思想을 박애몽상으로 취급하는 者들, 未來要求를 단순히 文學으로 취급하는 者들, 人道思想을 잔소리로 취급하는 者들인데 이들은 아직도 고리라이고 人間이 되는길에는 멀다고 했다. Hesse의 小說의 主人公들은 그가 말한 고리라에 가까운 平均치人間들이 아니라, 內的 눈이 있어서 그 소용돌이 속에서 人間이 되려는 끊임없는 몸부림으로 발전해 가는 사람들을 그린 것이다. 이들은 다만 그들의 환경과 타고난 재능의 상이함때문에 三段階의 發展樣相이 다른것 같지만 그 근본은 같은 것이다. Hesse 自身이 세워놓은 이 人間理解의 기본 Model을 떠나서는 Hesse의 〈人間像〉을 바로 分析, 評價, 理解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13) H.H. <Du sollst nicht töten> Bd. 7, S. 235.

## III.

Hesse의 첫 成功作 小説인 《Peter Camenzind》에 묘사된 主人公의 人間像은 다만 그 出身家門이 지식층의 선교사집안이 아닌 中流의 農夫家庭으로 교차된 點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많은 部分이 Hesse 自身の 自書傳的 要素로 가득하다. 어찌문 다른 환경, 다른 계급층에 심어진 Hesse像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다. Thomas Mann처럼 Hesse에게도 가장 人生의 큰 문제는 自己自身이었고, 自己個人的인 思想, 信條 및 觀念을 확립하며, 人間위에 서서 교육하는 高姿勢로 존경과 명성을 갈망하는 作家身分이었다. 이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외부조건이나 환경의 저지도 불사했다. 主人公 Peter도 같은 상념의 소유자로 詩人이 되고 作家가 된다. 그는 兩靚으로 부터 두개의 모순적 才能이 융합된 불가해한 낭비성의 性品을 물려받았다. 그 하나는 비상하게 큰 체구에 강한 肉體의 힘이요, 다른 하나는 勞動을 꺼리는 마음이다. Hesse처럼 페터는 타고난 태만(ein Genie im Faulenzen, angeborene Trägheit, S. 236)과 동경, 自然愛와 방랑벽 그리고, 우울증과 人間社交界를 꺼리는 성격이다. 우울증이 찾아오면 슬픈 想念이나 죽음의 生覺이나 암세적 이념에 대한 기쁨을 맛본다. 그리고 學問이나 世上 삶이 그에게 가르쳐 준 것은 거이 없고 學校 공부도 중간치정도다. 아버지는 페터를 즐겨 農夫로 만들려 했으나 저속한 일상생활(das gemeine tägliche Leben, S. 247)에서 벗어나서 그의 內面의 눈은 배우며 창작하고, 통찰하며 방랑하는 自己길을 택한다. 그래서 그는 自己가 고향의 많은 同姓의 사람들과는 애초에 다르게 빛어진 존재임을 증명해 보려했다. 페터는 모친이 병으로 죽어갈 때에 전혀 목사를 모셔올 必要性을 느끼지 않는다. 죽으면 하늘에 天使같이 살 것으로 생각한다. 페터도 Hesse처럼 그의 父母와는 달리 전혀 기독교의 신앙은 없다. 그러나 Hesse가 말하는 경건型의 人間에 속하여 宗教的 人間이며 詩人이요 作家이다. 平均치 人間이 아니라, 「人間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행복하게 하려는 豫言者」로 成長하며, 「바람과 물소리에 神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夢想家」<sup>14)</sup>이다. 「詩人」이요 「豫言者」요 「夢想家」요 「聖者」로 第三의 人間發展段階에 도달하는 페터의 成長過程을 이 小説이 묘사한 것이다. 天性的 게으름과 肉體勞動을 꺼리고, 도보여행이나 自然을 사랑하고 꿈꾸기를 즐기며 우수에 잠기는 성벽때문에, 페터는 약간의 장학금으로 고등학교에 가고, 또 大學에서 공부하기도 한다. 독일의 古典作家들인 Lenau(레나우), Schiller(쉬러), Goethe(괴테), Heine(하이네), Gottfried Keller(고트프리트 케리)의 作品들을 읽으면서 作家수업을 계속한다. 17歲로 그는 한 변호사의 딸인 귀족적으로 우아하게 생긴 少女에게 반하고, 그 以後에도 두번 더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페터의 女子에 대한 사

14) H.H.: 《Peter Camenzind》, "du Prophet, der die Menschen Liebe lehren und beglücken will." Du Träumer, der in Winden und Wassern meine Stimme hören möchte!" Bd. 1, S. 344.

랑은 마치 별이나 먼 푸른 산을 대하듯이 존경하면서 성스럽게 여기는 태도다. 타고난 美와 本性의 統一性때문에 男子보다 우월하며 神께 더 가까운 存在로 생각한다. 그래서 한번도 사랑에 成功을 못하고 노총각으로 늙는다. 페터는 몹씨도 男子친구를 얻기를 원했는데 피아노공부하는 같은 하숙집 아래층에 사는 Richard를 얻어 진정한 友情을 나누면서 Wagner(바그너)의 음악과 함께 Nietzsche(니체)의 作品도 접하게 된다. 그를 통하여 많은 學生들, 音樂家들, 文學家들 그리고 藝術에 호가로서 많은 外國人들을 페터는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哲學家들과 社會學者들 그리고 美學者들도 알게되면서 새로운 많은 것을 배우고 듣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해서 페터는 人生수업을 착실히 받게된다. 또 그가 책에서 知識을 얻은 중에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中世의 聖者라는 Franz von Assisi(푸란즈 폰 아씨시)이다. 이때 페터는 하루아침에 일약 이름있는 作家가되어 돈 걱정을 면한다. 그에게는 주기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런 때는 잠을 못자고 自然을 내다보거나 밤의 호수나 숲속을 찾아가기도 한다. 또는 숲집에 가서 술이 위로할때까지 퍼 마신다. 그의 아버지도 술고래여서 술때문에 부유한 살림을 누리지 못했다. 페터는 그의 슬픔과 삶의 無能力 때문에 고심한다. 페터는 그의 강한 肉體속에서 그의 靈魂을 짓누르고 괴롭히는 정체를 생각해보는데, 그것은 우울증에 있는 惡魔的인 것임을 알게된다. 이것이 그는 병들게 할뿐만 아니라 자만심과 근시안적이 되게 하고, 교만하게도 만드는 놈인 것을 깨닫는다. 平均치 아닌 우수하다는 Hesse의 作品中の 人物로서 自己안에서 느끼는 罪惡의 面을 크게 다룬 作品이 있는데, 많은 물의를 일으킨 《황야의 이리》이다. 페터는 어릴때부터 人間을 꺼리고 自然을 더 즐겼다. 그런데 프란즈 폰 아씨시의 영향으로 페터는 自然에 대해 다른 關係를 갖게 된다. 즉 숲과 산과 나무들의 소리가 神의 言語이며, 이들은 自己를 사랑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자기라는 느낌이다. 그래서 페터는 이제 自然을 人格的으로 사랑하기 始作한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自己文學의 새로운 理念을 얻는데, 自然의 言語를 말하는 詩人이 되기도 한다. 이때에 페터는 비로소 그의 文學을 읽어줄 人間들을 막상 自身이 냉소하며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실감한다. 人間을 사랑하기 爲해 결혼도 결심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다. 관심이 있던 女人이 다른 男子와 約婚했다는 消息을 접한다. 이제사 페터는 모든 善과 기쁨의 핵심은 사랑이고, 비록 女人은 잃었지만 진지하게 사람을 사랑하기로 決斷한다. 그때 과거 아버지와의 사랑없던 關係를 개선하기 위해 고향을 방문하고 사랑을 보인다. 그 後에 이태리여행에서 한 과부의 사랑을 받아보기도 한다. 페터는 그의 위대한 文學속에서 오늘날의 人間들로 하여금 선견지명있고 말없는 自然의 삶을 가까이 보게하고 사랑하게 만들기를 원한다. 그는 人間들에게 大地의 고통을 듣는것을 가르치고 全體 삶에 참여할 것을 가르치고, 人間은 神들이나 우리 自身에 依해서 창조된 存在가 아니라 宇宙의인 全體의 아이들ियो, 大地의 部分임을 가르치고자 한다(Kinder und Teile der Erde und des kosmischen Ganzen sind, S. 328). 그는 또한 自然에 대한 兄弟的 사랑에서 기쁨의 원천과

삶의 샘을 발견하도록 가르치려 한다. 그는 관조의 기술과 산책과 存在하는 것들에 대한 기쁨을 說教하려 한다. 그리고 모든 산것들이 바로 형제들이고, 사랑에 가득차서 고통과 죽음을 더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가르치기를 바란다. 그때까지만 해도 페터에게는 人間이란 종합된 全體일뿐 근본적으로 낯선 存在들이었다. 그가 必要로한 사람이란 흥미있는 사람이 아니라 類型의 人間이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회복하기로 노력한다. 책장을 새로 만들게 하려는 기회가 조그만 목공소 가게 주인과 알게되고 그의 가족과 친교를 얻는다. 뿐만 아니라 목수의 처남인데 병자요 쌍곱추인 Boppi를 알게 된다. 처음엔 그 흉한 모습을 쳐다보기가 괴로웠고, 악수로 인사하는 것이 끔찍스럽다. 페터는 Boppi를 적은 돈으로써 어떤 양로원이나 자선원에 보내도록 목수와 의논할 계획을 세운다. 어느 일요일 건지도 못하는 곱추만 집에 가둬놓고 페터는 목수가족과 산책과 음식을 즐긴다. 그때 갑자기 神의 音聲이 들려온다. 「너 詩人아! ..., 人間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복되게 하려는 너 예언자야! 바람과 물에게서 내音聲을 듣고자하는 너 夢想家야! 너는 내게 친절하고, 너가 氣分좋은 時間을 즐기는 그런 집은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집을 내가 찾아들기에 값있게한 그 날에, 너는 그곳을 도망쳐 나와서 나를 몰아내려 고안하는구나! 너 聖者야! 너 豫言者야! 너 詩人아!」(S. 344) 그때야 自己모습이 깨끗한 거울앞에 비추인듯 하고, 그 속에 自身の 모습은 거짓말쟁이요, 허풍선이요, 비겁자요 約束을 어긴자로 보게되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자기 안에서 고통을 느끼고 상처입어 움틀거리는 바로 그놈은 부서져야하고 멸망해야 할 것임을 안다. 그때 해가 저서 불도 혼자 켤 수 없는 Boppi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후시 의자에서 떨어져서 아프지나 앓는지, 죽어 땅에 덩굴어져 있거나 아닌지 공포에 싸여 그들을 남겨두고 먼저 집으로 돌아가 본다. 이 가르침을 받은後 페터는 목수도 싫어하던 그 곱추를 데려와서 함께 살 새집을 얻는다. 이로써 페터는 청년기의 己己의 사랑을 완전히 극복하고 Boppi와의 동거생활에서 그가 희생한 것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 얻는다. 곱추가 죽자 그는 80歲가된 부친을 돕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페터는 고향에 돌아와서는 다시금 作家도 聖者도 아닌 한 地方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리고 平凡한 사람들은 아무도 自己속에 「한 奇人」(einen Sonderling, S. 370)을 보려하지 않음을 기뻐한다. 이 作品研究로서 Hesse의 成長過程을 많이 닮아 있다는 면과 또 그의 自然과의 대화와 사랑, 즐겨하는 도보여행, 꿈과 동경에 잠기는 면들을 독일 낭만주의 文學의 측면에서 분석 해석한 논문은 많이 있다. 한 靑年이 自己自身이 되기 위해 成長하는 모습이면서도 우수와 동경과 아픔을 낭만적인 향기로 가득하게 옷입고 있어서 특히 思春期의 靑少年少女들이 즐겨 읽고 文學의 꿈의 나라로 나르게 된다. 그러나 페터는 그 모든 것에 더하여 Hesse가 주장하는 人間類型觀念과 三段階成長說을 가지고 분석해 볼 때에 바른 人間像을 파악하게 된다.

페터는 Hesse의 理性的 人間型이 아니라 한 敬虔한 人間類型이다. 앞장에서 說明했듯이,

그는 強한 自然感覺과 越理性的인 世界질서의 신앙과 경외심을 가진 人間型이다. 그는 人間을 大地와 宇宙全體의 한 부분이면서도 봉사자로서 自然의 소리를 人間에게 傳하여 人間과 自然을 연결하는 役割을 하고자 한다. 또 페터는 人格의 神은 아니지만 경건유형의 人間이 體驗한다는 神의 책망과 가르침을 받기도 한다. 아울러 聖 Franz의 책과 생애를 통해 개념으로만 알았던 모든 善과 喜樂의 핵심인 사랑을 곱추환자 Boppi에게 實踐함으로써 Hesse가 말한 경건型的 第三의 發展段階에 들어선다. 페터의 타고난 태만함도 自然神秘主義에 빠지는 것도 Hesse 觀念의 경건유형 人間像의 특징이다. 그런데 페터는 경건유형의 人間중에서도 그리 심오한 發展을 이룩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다. 다만 第三의 단계인, 人間이 自己스스로를 다스리지 않고 神에게 다스림을 받는 경험을 한 사람이다. 인식하면서 最終目的이 없이 다만 無限한 힘의 自己實現을 尙해 志向해가는 그런 人間像이다. 사랑의 實踐을 위한 [自己 犧牲]이 페터로 하여금 第三의 段階에 들어선 人間이 되게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異相하게도 故郷에 돌아온 페터의 모습은 聖者나 豫言者나 詩人의 그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속에 한 奇人과 眞實性의 결여를 본다. 이것은 다른 作家의 作品에서는 볼 수 없는 모순된 面으로서 一般의인 통념을 가지고는 해석을 불허한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페터가 Hesse的 人間類型的 第三段階 發展에 있는 모습인 것이다. 앞서 言及한대로 Hesse의 理論에 依하면 第三의 단계에 이른者들도 大部分은 그것을 지속못한다. 그 아름다운 靈感의 經驗이 지난 다음 순간에는 다시금 의미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특히 가장 기분나쁜 氣質을 分明하게도 자기 안에서 發見한다는 것이다(besonders deutlich die Unangenehmsten Merkmale, Bd. 7, S. 395). 페터는 Hesse 自身の 青年期를 많이 닮은 Hesse 理論의 第三단계를 體驗한 경건타입의 한 作家像이다.

#### IV.

Hesse의 最終大作이자 그를 文學分野에서 世界的인 大家로 인정받게 한 小說인《Das Glasperlenspiel》(유리알 遊戲)는 12년이란 긴 창작세월을 要하고 1942年 4月 29日에 完成됐다. 이 小說은 少年 Josef Knecht(요셉 크네히트)가 「유리알遊戲」가 최고의 教育역할을 하는 精神의 명랑한 獨自의인 小國家 카스타리엔(Kastalien)이란 이름의 教育州에 들어가서 그 곳에서 어떻게 成長하면 遊戲의 各人이 되어 最高명예요 지도자인 Ludi Magister Josephus 三世라는 카스타리엔州의 수도단(Hierarchie)의 最高地位者의 公的 職銜을 받으며 또 어떻게 그 最高의 精神의 宗團의 精神世界까지를 초월 능가하는 수준의 人間으로 成長했는가를 묘사한 요셉 크네히트의 傳記이다. Hesse가 만들어낸 이 假象의 카스타리엔 教育州은 世上 學校에서 각 분야중 최우수 학생들만 뽑는 에리메學校이다. 이곳은 人間世界를 위한 學問分野의 가장 심오한 부분을 각자의 才能에 따라 研究할 수 있어서 精神世界의 學問개발에

공헌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카스타리엔教育州는 世上에 없는 독특한 宗團을 형성하고 있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精神的學問研究뿐만 아니라 이 宗團의 法則인 결혼하지 않을 것과 소유재산이 없을 것을 (die Besitzlosigkeit und die Ehelosigkeit, S. 136) 따라야 한다. 카스타리엔教育州나 그의 宗團이나 그곳 모든 機構들은 그 自體로 重要的 意味를 갖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싱스럽고」 「眞理」라고 까지 主張하는 Hesse가 아는 人間됨의 發展三段階觀念을 그의 二種類의 人間에게 具現시키는 그런 환경이요 허구적인 世界인 것이다. 이 小說에 나오는 重要人物들도 Hesse의 그 觀念을 表出시키는 類型的 存在이며 個人的이고 事實的인 人間들의 運命과 事件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 主人公 요셉의 生涯는 Hesse가 상상할 수 있는 경진타입의 人間이 도달할 수 있는 最高의 境地이다. 이 境地는 카스타리엔教育州의 最高人物들까지도 理解를 불허할 水準인 것이다. 遊戱의 名人이 된 요셉은 그 宗團의 「族長」이요 「高司祭」요 아니 「거이 神的 存在」(ein Fürst oder Hohepriester, beinahe eine Gottheit, S. 115)라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의 유아 時節과 最終末年의 生은 神話(Legende, S. 119)로 취급되어 있는데 神話로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小說속의 요셉 生涯를 서술해가는 傳記作家는 요셉의 生涯를 볼때에 그의 삶이 명확하게 계단적인 發展을(in klarer Stufenfolge aufgebaut, S. 119)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Hesse가 요셉의 生涯를 통해서 그의 三段階發展觀念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 해준다. 이 小說을 여러 角度에서 分析할 수 있겠지만 人間像研究의 觀點보다 더 핵심적인 연구는 되지 못할 것이다. 요셉의 成長을 돕는데 不可缺의 많은 人物들이 小說에 나온다. 이들은 半神들과 天使長의 하나(einer der Halbgötter und Erzengel, S. 121)로 인정받고 있는 카스타리엔 教育州의 老音樂大家(Musikmeister)와 竹林(Bambusgehölz)의 中國人(道家的인 面을 아울러 지닌) 老佛敎僧의 은둔者인 老兄(Der ältere Bruder)과 Jakobus 神父와 카스타리엔 教育州의 宗團指導者인 Alexander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경진유형의 人物들로서 자기 自己의 才能과 소양에 따라 도달 한 그 境地는 상이하다. 이들 外에도 요셉의 全生涯發展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요셉을 요셉되게한 學友 Plinio Designori(프리니오 테시뇨리)를 들어야 한다. 프리니오는 Hesse의 理性的 類型的 人物로서 最上의 發展을 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敵對의 性品과 人生觀과 世界觀을 보인 사람이다. 그러나 바로 그가 요셉의 成長에 缺 없어서는 안될 友情關係를 갖게 되는가는 뒤에 說明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요셉의 成長의 第一段階인 그의 유년時節부터 간단히 그 特性들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요셉의 家門은 알려진바가 없다. 다만 그의 父母가 일찍 世上을 떠났든지 아니면 운명적으로 장학금을 받고 教育청에 不利하게 入養되었든지, 요셉은 따뜻한 家庭을 모른다. 아버지의 직업은 어찌면 「구두장이」(Schuster, S. 535) 일지도 모른다는 정도이다. 그래서 요셉이란 人物은 그의 生涯의 始作과 마지막이 기록된 것이 없는 神話라는 것이다. 그러나 요셉의

性品은 조용하나 명랑하고 타고난 특출한 音樂의才能과 知性을 겸한 아이이다. 그래서 그는 마치 英才學校와 카스타리엔教育州와 그곳 宗團에 누구보다 적합했고, 또 그곳에서 平生을 家庭을 갖지 않고 봉사자로 일할 복된者로 태어난듯 했다. 요셉이 英才學校에 받아들여진 것은 精神的삶의 召命을 위해서다. 그런데 그것이 學問能力的 측면 아닌 音樂의 뛰어난才能에 의해서된다. 音樂과 數學과 冥想은 유리알遊戯가 目的으로하는 人類文化的 全體的 內容과 價値를 知性的所有物로 만드는데 반듯이 있어야할 宗 목이기 때문이다. 요셉의 유년時節을 특기하는 사건은 그가 英才學校로 발탁을 받고 그곳 言語教育學校를 卒業할 무렵 그때까지 그가 처해 살았던 生活環境과 아껴주던 사람들을 떠나야하는 心的 苦痛이다. 높은 召命이 따르게 되는데는 必然的인 原因이 되는것이 명에심과 고만, 자만심과 사랑의 결핍임을 깨닫고, 그는 召命을 다만 「선물」(ein Geschenk)이요, 「內的경고」요(als innere Mahnung) 「명령」(einen Befehl, S. 132)으로만 받아들리기로 한다. 英才學校에서 첫단계교육을 받은 후에 世上에 나가서 自由職業을 택하지 않고 自己才能에 가장 부합된다고 느껴지는 「教師」(Lehrer, S.147)가 되려고 決心한다. 요셉은 17才로 教育州의 첫단계 學校를 무난히 별 문제 없이 질서와 조화가운데 마쳤다. 그러나 그에게도 成長의 第二段階인 투쟁과 발전과 문제성을 안게되는 時代로 접어든다. 이 時代에 그를 음으로 양으로 키워준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가장 많은 가르침으로 이끌어준 사람인 老音樂大家에 관해서 言及하기로 한다. 그는 카스타리엔教育州의 가장 높은 열두명의 半神들의 하나(einer der zwölf Halbgötter, S. 12.)로서 모든 音樂업무에 있어서 最高심사원이다. 그는 個人이름조차 없고 다만 音樂大家라고 불려진다. 처음에 그가 와서 요셉의 才能과 性品을 테스트하고 教育州로 발탁 했다. 교육주에서도 처음부터 始作하여 그가 죽을때까지 요셉을 靈的으로 가르치고 이끌어 준다. 요셉이 精神과 肉體生活의 조화를 잃고 있을때에 나타나서 冥想을 가르치고, 요셉이 精神의 世界的 탐구, 學問의 탐구에 몰두해 있을때는 그가 所有하고 있는 情熱은 「靈魂의 힘」이 아니라 靈魂과 外部世界的 마찰임도 깨우쳐 준다. 그리고 眞理는 있지만 요셉이 갈구하는 절대적이고 完全하며 홀로 현명하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Lehre, S. 157)은 없다고 말해준다. 完全한 가르침을 갈망하지 말고 그 自身の 完全을 갈망하라는 것이다. 神性이 요셉안에 있고 개념들이나 책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Die Gottheit ist in dir, nicht in den Begriffen und Büchern, S. 157). 音樂大家는 나이 많아서 죽기 얼마 前부터는 佛敎의 서가에 관한 神話說처럼 肉體마저 完全히 靈性化한 해탈의 경지에 도달했다 한다. 그는 冥想과 오직 音樂을 통해서, 音樂을 人間의 最高目的으로가는 하나의 길로서, 內面的 自由와 純潔과 完成으로의 길로 택하여, 오직 音樂에만 몰두함으로 音樂의 化身이 된 狀態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이같은 상태를 은혜와 完成과 老지혜와 悅樂의 狀態(Sein Zustand von Gnade, Vollendung, Altersweisheit, Seligkeit, S. 355)라고 칭했다. 모든 宗教에 은총을 입은 者, 完成된 者, 서광을 발하는 者, 變容한 者가 있다는데, 왜

카스타리엔의인 경건이 이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겠느냐고 한다. 佛敎神話를 모르는 사람이면, 人間이 神이 된다는니 人間을 神的存在가 됐다고 보는 Hesse의 이같은 생각이 얼마나 가공할만한 것인지 몹서리치게 된다. Hesse가 그의 三段階觀念에서 경건유형의 사람 中에 석가처럼 〈精神들의 精神〉이 되어 삶에 관여하지 않는 관조者로, 自我가 完全히, 肉身의 自我에서 독립되는 그런 解脫의 境地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Hesse는 老子의 道敎와 기독교에서도 같은 상징으로 표현된 것을 본다는 것이다. 기독교와 불교가 얼마나 根本적으로 다른 것인지를 Hesse는 기독교가정에서 자랐지만 몰랐다. 여기에서 그가 主張하는 宗教요 哲學인 「單一性」思想이 (Eine Einheit, Bd. 7, S. 390)나온다. 地上의 모든 時代에서 人間고뇌와 人間탐구로 얻은 것이 「單一性」인데, 이것은 人間이 有色種族을 막론하고 하나의 神의인 存在에 合一한다는 思想이다. 〈유리알遊戯小說〉에는 Hesse가 想像하고 있는 團體를 가진 神的存在에 合一된 人宗을 이 老音樂大家와 또 한사람 竹林에 있는 中國人 道敎와 佛敎를 통합하고 無爲와 참선으로 은둔생활하는 老兄(Ältere Bruder, S. 204)으로 불리우는 그 사람이다. 요셉은 이 老兄에게서도 道敎思想뿐만 아니라 대가지로 짐치는 것까지 쓸모있는 신비적인 것으로서 배워 익힌다.

요셉이 遊戯의 名人이 되기에는 또한 베네딕틴宗派의 神父 야곱(Jacobus)의 친교에서 카스타리엔州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우게 된다. 그는 역사가인 야곱 神父에서 歷史的認識의 方法과 手段에 대한 통찰력과 그 적용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知識領域」으로서가 아닌 「現實」과 「生活」로서 體驗하고 그러기 위해서 自己個人生活의 變化와 상승을 歷史에 부합시켜야 함을 알게 된다. 요셉은 老音樂大家에서 自己完成의 길을 배우고 또 야곱 神父에게서는 카스타리엔州에서 배운 고도의 지식들을 外部世界에 적용 및 공헌해야만 하는 必然性을 인식하게 된다. 요셉이 末年에 카스타리엔州의 유리알遊戯의 名人이란 그 높은 地位와 명예와 보장된 삶을 한낱 친구의 어린아들의 家庭敎師役과 바꾸게 되는 勇氣와 信念이 야곱 神父와 친구 Plinio Designori의 영향으로 성장된 것이다.

프리니오는 Hesse가 묘사한 理性型의 고도로 개발된 人間像 그대로다. 그의 本郷은 世上 삶이요, 文化요, 現實이요, 政治이다. 自己理想을 現實에서 實踐하기 위한 權勢를 획득하고 組織을 만든다. 프리니오는 社會主義의 우두 머리의 팔과 결혼했고 그 자리를 계승할 第二人者다. 그는 그러나 貴族家門에 태어나서 어릴때부터 카스타리엔 敎育州에서 청강생으로서 高度의 精神위주교육을 받는다. 여기에서 프리니오는 요셉과 처음에는 강한 對立的의 立場에서 만나고 서로 논쟁을 벌인다. 프리니오는 自然的 삶과 혁명가의 立場에서 精神의 高度양육의 立場에 있는 요셉에게 카스타리엔州의 삶이란 生活의 투쟁과 고난을 모르고 또 人間性의 部分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世人들이 바치는 세금으로써 精神的 自己 滿足을 위하고만 있음을 비난한다. 요셉은 그의 음성에서 일종의 不安과 良心의 가책과 함께 그의 主張에 남모르게 마음이 끌림을 느낀다(...fühlte er sich von ihnen auf eine unheim-

liche Art angezogen,... S. 169). 그리고 프리니오의 음성에서 自然的 유치한 生活은 정신적 교육없이는 「動物的인 것」(ins Tierische, S. 184)이나 그보다 더 나쁜 상태로 퇴보할 수 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또한 순수하게 精神에만 의지된 삶도 위험하고 열매없는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을 알게 된다. 自然을 대변하는 프리니오 自身도 비록 카스타리엔州의 生活을 비판하지만 이곳을 참으로 사랑하며 여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世上에 나가서 自己길을 개척하려고 한다. 프리니오나 요셉은 Hesse가 말하는 天才들이다. Hesse의 理論에 의하면 天才의 人間의 특징이란 自己類型的의 특성을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내면서도 自己와 反對類型的의 사람에게 숨은 존경심을 품고 끌린다는 것이다. 實相은 天才의類型的의 人物이란 이 두 基本類型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反對的의 才能에 깊히 지배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自己의類型的의 특성을 질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하고 고양시킨다고 했다. 이렇게해서 最高의 精神的 經驗이란 理性과 信心의 和解요 큰 對立을 自己와 同一한 것으로의 認識(ein Sich-als-Gleicnnis-Erkennen der großen Gegensätze, Bd. 7, S. 400)이라한다. 요셉과 프리니오는 Hesse의 三段階發展觀念과 2類型 人間像理論을 모범적으로 具現한 類型的의 人間像이다. Hesse의 理論대로 프리니오는 世上生活을 위한 理性的의 類型的의 人間이면서도 非凡하고 例外的인 人物이어서 精神世界를 사랑하고 배울뿐만 아니라 경건型의 人間들이 갖는 內的의 갈등과 罪意識에 고통받는데 후에 요셉의 도움으로 冥想과 精神的 훈련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는다.

유리알遊戲의 名人으로 선출받은 요셉은 밖으로는 그의 직무의 모범적 관리자이요, 대변자로 큰 공노와 업적을 남기면서 기여한다. 그러나 요셉의 本性에 있는 二重性和 兩極性은 새로말은 名人의 직무의 습득을 위해 필요했던 바쁜 一年이 지나자 다시 現實世界에 대한 關心을 가지고 歷史公부를 시작하게 한다. 요셉은 카스타리엔精神國이 그들에게 빵을 제공하는 現實世界에 봉사하는 關係가 두절되어 있음을 통감한다. 때론 自己 속에 世上을 向하고 人間을 向하고 순박한 삶을 향한 불붙는 갈망을 느낀다. 그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을 가르치는 일과 교육이다(Lehren und Erziehen, S. 385). 요셉은 自己自身앞에 카스타리엔과 世上을 결합시켜 화해시키기를 소망한다(...ich wollte ja in meiner Person Kastalien und die Welt zusammenbringen und versöhnen, S. 398). 그 方法은 그러나 그가 카스타리엔州에 앉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世上으로 나가는 길 밖에 없다. 요셉은 그의 어릴때의 對立的의立場의 친구인 프리니오의 아들 Tito(티토)가 例外的인 비범한 人間이 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안은 아이임을 보고, 그를 교육할 일을 새로운 삶의 보람으로 삼는다. 50年의 人生을 카스타리엔의 精神國을 위해 투쟁하고 싸워왔지만, 精神的 同種번식에만 기여함으로 열매없는 정신적 불모상태를 퇴폐적인 것으로 느끼게 된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새삶을 始作하기도 前에 티토와 함께 살면서 그를 교육시킬 산장 호수에 티토의 권유를 거절 못하고 아픈몸으로 수영을 겨누다가 심장마비로 물에 빠져 죽고 만다. 이같은 그의 죽음이 요셉의

삶을 가치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것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해석이 된다. 그러나 요셉은 다시 말하건데 Hesse의 觀念의 具現化와 그의 三段階發展理論에 依하면 善을 위한 自己犧牲이 自己를 다 살게하고 自我實現을 위해 불가결의 要素다. 식가처럼 되지 못하는 경건類型的 人間에게는 초이성적 世界질서에 대한 신앙과 경외심을 가지고 궁극적 목적이 있는 이 삶을, 그 對像이 크든지 작든지 善을 위해 自己生命을 희생할때에 그는 最善의 境地로 몰입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요셉 크네히트는 自己속에 있는 動物的인 것과 모든 學問에 內在하는 惡魔的인 것을 冥想을 통해서 지지하려 했지만 밝은 기쁨과 만족이 없었다. 그는 自己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어린 티토의 가슴에 사랑을 심어주고 뿐만 아니라 他人의 生命과 生活을 죽인 죄의식으로써 티토의 人生에 희생적 봉사의 自我意識과 삶의 가치와 의미를 심어 줌으로써 요셉의 삶은 最善의 경지로 몰입한 것이 되는 것이다.<sup>15)</sup> 요셉 크네히트는 작은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自己몸을 돌보지 않는 희생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간에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킨 헤르만 헤세가 묘사한 가장 아름다운 경건유형의 천재적인 人間像이 된 것이다.

### Literaturverzeichnis:

Hermann Hesse: Gesammelte Schriften. 7Bde Suhrkamp Verl. Berlin, 1958.

Bernhard Zeller: Hermann Hesse, Monographie Hamburg 1963.

Heinz Ludwig Arnold (Hg.): Hermann Hesse, Text+Kritik München 1983.

Volker Michels (Hg.): Materialien zu Hermann Hesse >Das Glasperlenspiel< Suhrkamp Taschenbuch 108.

G. Mayer: Die Begegnung des Christentum mit den asiatischen Religionen im Werk Hermann Hesses, Bonn 1956.

Friedrich Lieser: Die Frage der Menschenbildung bei Hermann Hesse, In: Bildung und Erziehung Heft 11, 8 Jhg. Nov. 1955, S. 625-641.

15) H.H.: 《Das Glasperlenspiel》..., “spürte er im Weh seines erschrockenen Herzens, wie lieb er diesen Mann schon gehabt hatte, ..., daß diese Schuld ihn selbst und sein Leben umgestalten und viel Größeres von ihm fordern werde, als er bisher je von sich verlangt hatte.” Bd. 6, S. 543.

## 《Zusammenfassung》

**Das Menschenbild im Werk Hermann Hesses**

Tscholza Kim

Diese Arbeit stellt sich die Aufgabe, in den wichtigen Werken H. Hesses das Bild des modernen Menschen zu untersuchen.

Im ersten Kapitel mußte als Vorarbeit herausgearbeitet werden, wie man unter die Hessesche Religion verstehen solle, die Hesse selbst „meine persönliche Religion“ genannt hat, da die Menschen im Werk Hesses mehr oder weniger autobiographisch gefärbt und deshalb Sinnträger des Erlebens Hesses sind. Für Hesse wurde stets das eigene Ich zum Hauptproblem des Lebens, und dieses „Ich“ ist religiös. Die persönliche Religion Hesses ist weder das Christentum noch der Buddhismus. Sie ist eine Mischform vom indischen Brahmanismus, Buddhismus, Taoismus und mystischen Christentum. Sie trägt den christlichen Anschein, jedoch am fernsten vom Christentum.

Dazu sind auch als Vorkenntnis des Gedankengutes Hesses die zwei Theorien Hesses kurz zusammengefaßt vorgeführt, nämlich „Ein Stückchen Theologie“ und „Meine Religion“.

Sie sind sogenannte Wahrheit Hesses, durch die er die Menschwerdung einer Entwicklungsgeschichte der Seele durchgeblickt zu haben glaubt. Das seien die drei Entwicklungsstufen der Seele. Die erste Stufe des Menschen sei unschuldig und daher Paradies, Kindheit, verantwortungsloses Vorstadium. In der zweiten Stufe fallen die Menschen in die Schuld durch das Bewußtsein des Gutes und Böses. Hierbei reagiert die zwei Menschentypen ganz anders. H. Hesse klassifiziert die Menschen in zwei gegensätzlichen Grundtypen; sie sind die Frommen und die Vernünftigen. „Die Mehrzahl wird ja nie Mensch, sie bleibt im Urzustand, im kindlichen Diesseits der Konflikte und der Entwicklungen. Sie lernt niemals nur die zweite Stufe kennen, sondern bleibt in der verantwortungslosen Tierwelt ihrer Triebe und Säuglingsträume stehen“. Der Vernünftige glaubt den Sinn der Welt und seines Lebens in sich selber zu besitzen. Er bemüht sich um den Fortschritt, ist daher Erzieher. Sie rationalisiert die Welt und tut ihr Gewalt an. Sie fühlt sich aber „der Natur und der Kunst gegenüber stets unsicher“. Dagegen sind die Frommen in einem starken Natursinn und in dem Glauben an eine übrationale Weltordnung. Sie seien ein dienender Teil der Erde. Sie stehen nicht nach Macht, sondern neigen sich leicht in Mythologie. Sie sind Künstler

und Gläubiger. Ihre Grundstimmung des Lebens ist Ehrfurcht.

In den zweiten und dritten Kapitel ist festgestellt worden, daß die Hessesche Menschen die Frommen und die Vernünftigen vom ersten Rang sind. Sie sind weder von den Typen der kindlichen Mehrzahl noch der bildungslosen einfachen Menschheit. Sie erleben alle die typischen Seelenerlebnisse Hesses. Daher ist es unmöglich, das Menschenbild im Werk Hesses zu verstehen ohne die Kenntnis vom eigenartigen Gesichtspunkt des Menschenverständnis Hesses. Die Figuren im Werk Hesses sind alle Typen und nicht die reale. Die Hauptfiguren im Roman „Das Glasperlenspiel“, Josef Knecht und sein Freund, zugleich der Gegentypus Plinio Designori sind die geniale Vertreter dieser zwei Menschentypen. „Das Glasperlenspiel“, das Hauptwerk Hesses ist „in klarer Stufenfolge“ Hesses aufgebaut. Josef Knecht ist der idealste Fromme, den Hesse nach seiner Typenlehre gebildet hat, und Plinio Designori der idealste Vernünftige. Der Hauptfigur im ersten erfolgreichen Roman Hesses „Peter Camenzind“, Peter gehört auch dem Frommen nach der Typenlehre Hesses. Mit der Figur Peter Camenzind begonnen zeigen sich die Hauptfiguren im Werk Hesses das fortführende Bild der Menschwerdung als eine Form der Entwicklungsgeschichte der Seele Hesses.